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서울 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단체 연대기자회견 예고보도(2021.7.3.)

## 7/5(월), ‘서울 런’ 사업 서울시의회 통과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33개 교육단 체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3개 교육단체는 7월 3일(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서울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 과정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 런’ 예산으로 3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 런’ 사업은 ‘소득계층 간 교육비 격차 심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플랫폼 구축 사업예산 18억3천5백만원,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 40억원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만 3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책정한 예산 중 약 22억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연대 기자회견에 나선 교육단체들은 약 22억원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서울 런’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사업 방향으로 제시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집중지원’이라는 항목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증거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강의 방식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저소득층 학력 저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적합한가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인터넷 강의와 같은 교육콘텐츠가 아니라는 데에 동의할 것입니다. 학력 저하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습 공백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학습공백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는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해주느냐가 학력 저하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교육플랫폼에 인강을 탑재하고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도 문제이지만 ‘서울 런’은 사업의 중복성 및 공적 플랫폼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런’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넘기 위해 저소득층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시의적절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제안을 전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 명: ‘서울 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단체 연대 기자회견

□ 일 시: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연대 시민단체

강동노동인권센터, 관악교육공동체모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방과 후강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2021. 7. 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